

---

Vol. 34  
2014. AUTUMN

---

미르진은  
미르를 찾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

# MIRZINE



# 인생, 음악처럼 뜨겁게!

미국의 재즈 트럼펫 연주자이자, 가수인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에게 한 젊은이가 물었다.

“선생님, 재즈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의 물음에 루이 암스트롱은 한마디를 던졌다.

“그렇게 묻고만 다니면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참으로 명쾌한 해답이 아닐 수 없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 말로만 떠든다면, 결코, 그 참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음악은 때론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고, 때론 든든한 친구가 되어 준다.

루이 암스트롱은 ‘장르는 중요치 않다. 세상을 멋지게 만드는 건 음악 그 자체’란 명언을 남겼다.

그저 음악을 듣고 느껴라

그리고 인생도 열렬히 아름답게 매순간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theme issue

## Music is my life



4 음악은 나의 삶  
당신에게 음악이란?



6 영화 이야기  
Can a Song Save Your Life?  
또 하나의 음악 여행 \_ 비긴 어게인



10 드라마 OST  
타박타박 드라마 따라  
촬영장소 산책



24 가을 음악여행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오페라,  
그 매혹의 세계로!

## Hero

16 영웅 인터뷰

아름다운 미소와  
행복한 웃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거제 아주미르치과병원 윤상철 대표원장



18 아름다운 음악가

재즈 보컬리스트  
윤산

## Culture & Life

30 문화 김광석 신드롬,  
그 현장을 찾아서

34 교육 당신은 화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 With 미르

36 미르 news

통권 제34호  
발행인 류경호  
발행일 2014년 10월  
발행처 (주)미르네트웍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2가 149-132

# MUSIC IS

오아  
뚜기  
당신에게  
무엇인가?

# MUSIC IS

내가 지치고 힘들 때면  
모든 게 다 하나 둘 무너져 갈 때면  
항상 나를 다시 일으켜줬던 건  
음악 음악이야  
사랑 사랑이 날 울려도  
힘한 세상 세상이 등을 돌릴 때도  
견디게 해준 건 날 붙잡아 준 건  
음악 내 음악이야

가수 임정희, Music Is My Life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중적인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음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며, 음악에서 침묵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이 세상에 음악이 없었다면 우리 삶은 어땠을까? 사람들은 아침이면 알람소리에 눈을 뜨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출근한다. 향긋한 커피나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실 때도 음악이 우리를 반겨준다. 생각해 보니 음악과 삶은 참으로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음악, 바로 우리 삶의 동반자이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늑한 존재인 것이다. 만약 우리 인생에 감미로운 음악 선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제 아무리 예쁜 꽃도 향기가 없고 푸른 나무에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고 삭막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과연, 음악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가.

# Can a Song Save Your Life?

또 하나의 음악여행 **비긴 어게인**



음악을 빼고 가을을 논할 수 없으리라. 이맘때면 괜히 기분  
이 상송생송해지고 감성 톤의 음악들을 찾게 된다.  
2007년 국내에 개봉해 저예산 영화 최초로 관객 20만 명을  
넘기며, 사운드트랙 앨범이 9만 장 이상 팔린 <원스>. 음악영  
화 중에서는 단연 이 영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일 터.  
아직까지도 여운이 그대로 남아있을 만큼 <원스>를 재미있  
게 본 사람들이 많기에 존 카니 감독의 신작 <비긴 어게인>  
은 뚜껑도 열기도 전에 '형보다 나은 아우는 없다'는 속단이  
내려졌다.

그렇게 큰 기대감 없이 본 <비긴 어게인>은 상처 입은 이들  
의 사랑을 얘기했고, 아름다운 선율이 귀를 사로잡는 건 <  
원스> 때와 비슷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원스>보다 못하다  
고 생각했지만, 예기치 못한 장면에서 감동이 몰려왔다.  
한때 잘나가던 음악 프로듀서 댄(마크 러팔로)과 남자친구  
에게 버림받은 그레타(키이라 나이틀리)가 길거리 레코딩  
을 하기로 의기투합한 뒤 세션 연주자들과 옥상에서 '텔 미  
이프 유 워너 고 홈'이란 음악을 녹음하는 장면. 여기에서  
오랫동안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던 댄이 베이스를 연주하



고, 딸 바이올렛이 보란 듯 기타 솔로를 펼친다. 그전까지만 해도 음악평론가인 엄마에게 “꽝이야”란 평가를 받았던 딸이 아빠와 엄마에게 재능을 인정받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또한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댄과 그레타가 서로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을 함께 듣는 장면이었다. 그것을 보며 오래 전 친구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음악을 함께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스치며 추억에 잠겼다. 그리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과 음악을 함께 듣고 싶어졌다.

영화에서 댄은 말한다. “난 이래서 음악이 좋아. 지극히 따분한 일상의 순간까지도 의미를 갖게 되잖아. 이런 평범함도 어느 순간 갑자기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처럼 변하거든. 그게 음악이야.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진주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됐어.” <비긴 어게인>의 원래 제목도 ‘캔 어 송 세이프 유어 라이프?’이다. 노래가 인생을 구할 수 있을까? 물론 대답은 “예스”이다.

일상을 빛나게 해줄 영화가 필요한 당신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고 싶은 영화를 찾는 당신에게 <비긴 어게인>은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 STORY

싱어송라이터인 '그레타(키아라 나이틀리)'는 남자친구 '데이브(애덤 리바인)'가 메이저 음반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뉴욕으로 오게 된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오랜 연인이자 음악적 파트너로서 함께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것이 좋았던 그레타와 달리, 스타가 된 데이브의 마음은 어느새 변해버린다.

스타 음반프로듀서였지만 이제는 해고된 '댄(마크 러팔로)'은 미치기 일보직전 들른 뮤직바에서 그레타의 자작곡을 듣게 되고, 아직 녹슬지 않은 촉을 살려 음반제작을 제안한다. 거리 밴드를 결성한 그들은 뉴욕의 거리를 스튜디오 삼아 진짜로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만들어 가는데...



## INFORMATION

제목 : 비긴 어게인(BEGIN AGAIN)

감독 : 존 카니

장르 : 로맨틱 멜로

등급 : 15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 104분

트위터 : [twitter.com/pancinema\\_movie](https://twitter.com/pancinema_movie)

홈페이지 : [www.beginagain.co.kr](http://www.beginagain.co.kr)

### 1. 공감을 전하는 희망의 스토리

〈비긴 어게인〉은 스타 명성을 잃은 음반프로듀서와 스타 남자친구를 잃은 싱어송라이터가 뉴욕에서 만나 함께 노래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멜로디이다. 제목처럼 서로 각각의 인생에서 최악이라고 할 만한 하루를 보낸 두 주인공이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낯선 도시 뉴욕에 홀로 남겨진 싱어송라이터 '그레타'는 절망의 순간 '댄'에게서 음반 제작을 제안 받으면서 거리밴드를 결성해 진짜로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부른다. '댄'은 아내와의 별거, 딸과의 불편한 관계,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한 후 '그레타'를 통해 진짜 원하던 노래를 만난다. 〈비긴 어게인〉은 삶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 다시 시작하는 이들의 이야기와 사랑, 가족, 친구, 비즈니스 등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갈등을 유쾌하게 풀어내며 관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한다.



### 3. 톱배우, 톱가수들의 유쾌발랄한 매력 열연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들과 더불어 톱가수들이 출연해 환상의 시너지를 선사한다. 키이라 나이틀리는 수준급의 노래 실력까지 선보이고, 마크 러팔로는 유쾌한 연기로 새로운 매력을 발산한다. 세계적인 팝스타 '마룬5'의 애덤 리바인은 첫 스크린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보이스로 확인시켜주는 노래 외에도 다양한 감정연기를 소화하며 호평을 이끌어냈다.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할리우드의 신성 헤일리 스테인펠드와 캐서린 키너, 〈원첵스〉의 '폴 포츠' 역할로 익숙한 제임스 코든 등의 배우들은 물론 시로 그린, 모스 데프 등 가수들 역시 유쾌한 웃음과 자연스러운 연기를 통해 관객들이 드라마에 몰입하도록 돕는다.



폴 포츠 역할로 익숙한 제임스 코든

# Point

## 영화 관람 포인트



### 2. 가슴 두근거리는 감성폭발 노래

OST가 발매된 후 아이튠즈 OST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부르며 화제가 되었다. 〈비긴 어게인〉의 OST로 올해 제 17회 상하이 국제영화제에서 음악상인 예술공헌상을 수상한 그렉 알렉산더가 작곡하고, 애덤 리바인과 키이라 나이틀리가 각각의 버전으로 부른 주제곡 'Lost Stars'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 4. 존 카니 감독의 감각적인 웰메이드 영상

〈원스〉로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존 카니 감독은 〈비긴 어게인〉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감성과 더욱 감각적인 영상을 선보인다. 스토리와 음악을 조화롭게 만드는 탁월한 연출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존 카니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 역시 음악과 영화를 아름답게 섞어내어 더욱 깊어진 특유의 감성으로 진기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뉴욕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선율 안에 인생과 사랑, 예술을 담아 관객들을 설레게 한다.

### 5. 인생 최고의 시간을 선사하는 색다른 뉴욕

센트럴파크 호수 위,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옥상, 차이 나타운, 뉴욕 지하철 등 〈비긴 어게인〉은 여느 영화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던 색다른 모습의 뉴욕 거리 곳곳을 볼 수 있다. 영화에 채워진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맞는 각기 다른 장소는 캐릭터의 내면까지 표현하며 또 다른 감동을 일으킨다. 존 카니 감독은 뉴욕을 영화 속 하나의 캐릭터로 다뤘고, 직접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장소를 찾아 다녔다. 또한 스태프들도 영화의 감성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눈이 아닌 귀로 찾아내 한결 풍성한 뉴욕을 선보인다.



# Best.5

## 명장면 베스트 5

### BEST 1.

#### “음악이 들리는 마법이 일어나거든”

삶의 끝자락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이들의 첫 만남

대형음반사와 계약하게 된 남자친구를 따라 뉴욕에 왔지만 그와 헤어진 후 낯선 도시에 홀로 남겨진 '그레타'는 친구를 따라온 뮤직바에서 자작 곡을 부르게 된다. 아내와의 별거, 딸과의 불편한 관계, 게다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한 '댄'은 술에 취해 뮤직바에 들른다. 나지막히 울려 퍼지는 그레타의 노래는 절망으로 하루를 보낸 댄의 마음을 울린다. 감명 받은 댄은 그레타에게 함께 음반을 내보지 않겠냐며 제안한다. 삶의 끝자락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두 사람의 운명적인 첫만남에서는 그레타의 노래를 들으며 새롭게 프로듀싱 하는 댄의 상상이 펼쳐지는데 특히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장면으로 손꼽힌다.



### BEST 2.

#### “평범한 일상의 순간도

진주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것, 그게 음악이야”

음악으로 교감하며 자유롭게 뉴욕을 누비는 두 사람

댄의 추억이 담긴 Y작을 이용해 두 개의 이어폰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공유하고 함께 들으며 자유롭게 뉴욕 거리를 누비는 댄과 그레타. 흥에 겨운 두 사람은 클럽으로 향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두 사람만의 음악을 들으며 즐겁게 춤을 춘다. 뉴욕 거리 곳곳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음악과 그 속에 흠뻑 취한 그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저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만든다. 그레타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영화 <카사블랑카>의 주제곡 'As Time Goes By'가 흐르며 관객들 역시 두 사람의 음악을 공유하게 만든다.



### BEST 3.

#### “나 정말 바보처럼 사랑했어”

뉴욕커처럼 필 받아서 만든 노래로 전하는 진심

남자친구 '데이브'는 음악상까지 받으며 이제는 정말 록스타가 되어버렸다. 함께 했던 지난 5년간 음악과 노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꿈 꾸었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모두 바보 같이 느껴진 그레타는 술에 취해 데이브에게 전하는 노래를 만든다. “난 우리가 한 모든 약속들을 산산이 부숴지만 그래도 난 널 사랑했어”. 친구의 반주에 맞춰 아이폰을 마이크 삼아 전한 그레타의 진심은 데이브의 마음을 흔든다. 담담하게 읊조리는 키이라 나이틀리의 노래 실력이 특히 빛나는 장면이다.



### BEST 4.

#### “최고야, 바이올렛”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옥상에서 부녀의 합동연주

댄의 딸 바이올렛은 만날 때마다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아빠 댄 때문에 만나게 된 그레타의 권유로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건물 옥상에서의 녹음에 밴드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처음에는 주저하는 듯 싶다가 의외로 뛰어난 기타 실력을 선보이며 아빠 댄과 밴드 멤버들은 물론 관객들까지 놀라게 만든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감춘 채 다가가지 못했던 댄과 가족들이 다시금 마음을 열고 서로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되는 결정적 장면이다. 마이크 러팔로와 헤일리 스테인펠드가 직접 악기를 연주해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선보인다. 한여름 밤, 뉴욕의 야경은 보너스.

### BEST 5.

#### “모든 게 변해버렸어”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음이 담긴 'Lost Stars'

화려한 무대와 관객들의 함성에 취했던 데이브는 음성메시지에 남겨진 그레타의 노래를 듣고 아직 그녀를 잊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레타는 모든 게 변해버렸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신의 콘서트에 그레타를 초대할 데이브는 그레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녀가 자신에게 만들어준 곡 'Lost Stars'를 열창한다. 마룬5 보컬 애덤 리바인의 독특하고 감성적인 음색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장면으로 관객들을 최고의 순간으로 이끈다.

# 타박타박 드라마 따라 촬영장소 산책

의외로 가을은 짧다. 이맘 때, 가을의 아름다운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지금부터 제대로 가을을 타주고 즐길 수 있는 드라마 촬영장소를 소개한다. 여기에 드라마 OST는 덤. 자, 그럼 가을을 즐기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미르진>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자.

##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괜찮아 사랑이야'

작은 외상에는 병적으로 집착하며 호들갑을 떨지만 마음의 병은 짙어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과 사랑을 일목요연하게 되짚어 보는 이야기.



### 대구 단산지(봉무공원)

드라마를 본 분이라면 이 장면, 기억할 것이다. 지해수(공효진) 친구 윤철(이동화)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장재열(조인성)이 물에 빠진 곳, 바로 대구 동구의 단산지(봉무공원)이다. 아름다운 금호강을 품고 있는 이곳에서는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음은 물론, 시민들의 산책 장소로도 손색없다. 또한 인근에 봉무공원과 나비생태원이 있어 충분한 볼거리도 갖추고 있다.



### 대구 허브힐즈

허브힐즈는 에코테마파크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대구의 명소 중 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허브향을 맡으며 힐링 할 수 있고, 미니동물원, 에코어드벤처 등의 체험까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다비치 괜찮아 사랑이야



열성마니아를 일컫는  
‘폐인’의 원조, ‘네멋대로 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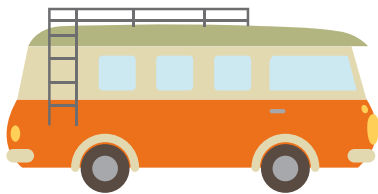
스턴트맨 복수가 우연히 학력과 계층이 전혀 다른 경을 만나지만,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 기구한 운명에 처한 끝에 인생의 참의미를 깨달아가는 드라마.



JM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포항 호미곶

드라마 종반부에 경(이나영)이 복수(양동근)와 만나려고 기다리는 장면이 촬영된 곳이 호미곶 해맞이 광장이다. 한반도를 호랑이의 형상으로 봤을 때 호랑이의 꼬리처럼 동해로 불쑥 솟아 나간 곳에 호미곶이 있다. 호미곶의 해맞이 광장은 새천년 한민족해맞이축전 개최장소로 기념조형물(상생의 손), 성화대, 영원의 불씨함, 채화기(천년의 눈동자), 캐릭터상품특별관, 공연장, 주차장, 관리소 등이 조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퓨전 청춘사극  
‘성균관 스캔들’

조선시대 금녀의 공간 성균관에서 벌어지는 청춘 4인방의 성장 멜로드라마.



JM 찾았다



전주 전주향교

한옥마을 중심에 고려 말 창건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간직한 전주향교는 옛 한양의 성균관에 버금가는 큰 규모를 지녔다 해서 일찌감치 호남의 대표 향교로 불렸다. 특히 배롱나무와 평균 수명 400년의 은행나무가 유명하다. 또한 유교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낸 대성전과 강의·학습의 중심 공간인 명륜당의 자태는 당당하기 그지없다.



## 70년대의 비열한 권력 그린 '빛과 그림자'

TV가 보급되기 전 전국을 떠돌며 리사이틀을 하던 쇼단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주인공의 사랑과 야망을 그린 드라마.



안재욱 바람



### 순천 오픈 세트장

196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의 옛 도심풍경은 물론 달동네와 판자촌 등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돼 있다. 세트장에 들어서면 오랜 기억 속에만 간직해 왔던 건물과 가게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이 때문에 '제빵왕 김탁구', '에덴의 동쪽', '자이언트', '빛과 그림자' 등의 인기 드라마들이 모두 이곳에서 촬영됐다.

##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사랑하는 여자의 배신을 알아차린 남자가 복수를 계획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갈등과 사랑을 그린 정통 멜로드라마



송준기 정말

###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2008년부터 조성된 통영 동피랑은 벽화마을의 원조이다. 이곳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만나고, 어린왕자도 만나고. 그리고 시인 백석의 시도 감상할 수 있다. 프로 작가의 느낌보다는, 조금은 어설픈듯한 그림들이 오히려 인상적이다. 특히 주인공 서은기(문채원)이 운영했던 카페와 할머니 바리스타의 솜씨를 맛볼 수 있는 작은 가게도 재미있다.



## 지구에 떨어진 외계남과 톱스타의 로맨스, '별에서 온 그대'

400년 전 지구에 떨어진 외계남과 한류여신 톱스타의 기적과도 같은 달콤 발랄 로맨스.



린 My Destiny

### 거제 장사도해상공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는 천송이(전지현)의 말에 도민준(김수현)은 장사도로 향한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데이트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장사도는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에 위치한 섬으로, 지난 2012년 해상공원으로 개장했다. 10만여 그루의 수백 년 된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한려수도의 절경과 조화를 이루면 멋진 모습을 만들어 낸다.

##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꽃 피운 '참 좋은 시절'

가난한 소년이 성공한 뒤 고향에 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가족의 소중함과 사람의 따뜻함을 담아낸 드라마.



이문세 슬픔도 지나고 나면

### 경주 황남동 골목

'참 좋은 시절'은 경주를 무대로 가족들의 소박한 삶을 그려냈다. 여기에 경주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적지부터, 마을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 등을 보여줬다. 특히 경주는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여러 문화재와 유적지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널리 알려져 사시사철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아름다운 미소와 행복한  
웃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거제 아주미르치과병원  
윤상철 대표원장



직원들의 기분 좋은 인사를 받으며 들어서니, 군더더기 없는 구성과 깔끔한 내부가 인상적이었다. 이내 서글서글한 표정의 윤상철 대표원장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편안하고, 유쾌하게 실 틈 없이 윤상철 대표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환자들에게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는,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인터뷰 동안 윤상철 대표원장은 때로는 유쾌하고 진지하게, 때로는 담백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누구보다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줬다.



### 과하지 않은 자연스러움과 내면의 아름다움

“누구에게나 자신은 모르는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연스런 미소는 치아 건강과 관계가 있죠. 제가 할 일은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미’를 찾아 주는 것입니다.”

줄곧 ‘과하지 않은 자연스러움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던 거제 아주미르치과병원 윤상철 대표원장은 미적 가치 기준과 의사로서의 철학이 누구보다 확고한 사람이었다.

“환자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의사가 되는 게 저의 바람이자, 삶의 목표입니다. 결국, 진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들의 고민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진심 어린 자세로 치료하는 것, 그것이 의사로서 평생 안고 가야 할 과제인 것이죠.”

윤상철 대표원장은 의사와 환자의 ‘공감’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환자들을 위한 최고의 진료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감’입니다. 가장 먼저 병원시스템에 대한 원장들과 직원들의 공감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공감해야 원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분이 공감하는 최선의 진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소통하는 병원이 가능하

다. 앞으로도 의료진과 행정직원들이 공감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병원, 환자분이 공감하는 최고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미르는 임상술식 연구 개발은 물론, 공동 이미지메이킹, 브랜드 홍보, 체계적 교육 시스템, 공동구매에 이르기까지 ‘MIR’라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한 산학협동 모델은 해외병원과의 교류를 원활히 추진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처럼 MIR는 합리적 경영, 선도적 임상연구, 환자 중심의 진료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 치과의 표준을 지향한다고.

“미르는 기존의 프랜차이즈 치과와는 달리 임상과 경영의 조화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선진형 네트워크입니다. 병원 경영과 고객 서비스는 물론 첨단 의학정보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진료와 환자 중심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차별화된 브랜드파워를 자랑합니다. 저는 올해로 미르에 합류한지 딱 10년이네요. 거제 고현미르치과와 더불어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 치과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큰 것 같네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사람이 경쟁력이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병원은 기본적으로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치과가 대형화, 고급화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외형위주의 변화가 환자에게 어필하는 효과는 있지만, 환자를 위한 변화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주미르는 환자중심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우선 부담스러운 인테리어나 마케팅보다는 내원 환자분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고,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으며 진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



는 공간으로 만들었죠. 특히 첨단 진료장비와 기구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계속해 윤상철 대표원장은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값비싼 고급내장재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전하고 신속한 진단이 가능한 디지털 파노라마 CT, 장시간 진료에도 편안한 이중 쿠션의 진료용 চে어, 통증을 없애주는 최신형 무통마취기, 손상이 적고 회복이 빠른 물방울 레이저, 정밀한 근관치료를 위한 현미경 장비, 본뜨는 불편함을 없앤 디지털 구강 스캐너, 심미와 내구성을 모두 갖춘 지르코니아 보철시스템 등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췄습니다. 또한 정리가 완료 되는대로 의료 정보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식은 다른 병원에서 진행하는 방식을 가져와 우리만의 방식을 맞추는 형태로 만들 것이며, 차후 JCI인증도 진행할 것입니다.”

그는 누가 뭐라 해도 미르의 힘은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주기적으로 다양한 전공의 원장들이 모여 임상에 대한 연구결과를 나누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회의를 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들 역시 원내 세미나 발표를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운영에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기존에 혼자서 진료를 할 때는 혼자서 운영하다보니 설 수가 없었지만, 현재는 세 명의 원장이 함께 있어 여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X-ray를 보더라도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부분을 같이 의논하고 협력하면 훨씬 빠르고 정확한 길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상철 대표원장은 독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병원은 첫 번째가 환자분들이 만족하면서 나가시고 다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이죠. 왜냐면 직원들이 행복해야 환자들에게까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람이 있다면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원장님들과 함께 연구하며 배우는 자세로 환자분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드리는 지킴이로 거듭나는 병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나치기 아쉬운 거제의 추천 명소

청정해역 아름다운 풍경을 사랑하는 거제는 제주도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거제도 여행의 백미는 '외도'가 아닐까. 더불어 풍차가 있는 바람의 언덕, 물 맑기로 이름난 다도해까지. 지금부터 소개하는 곳들을 메모해 두고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거제는 넓고, 볼 것은 많다.

## 외도

외도는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산 109번지 일대 4만4천여 평의 천연 동백 숲을 이루고 있으며, 아열대 식물인 선인장, 코코스 야자수 등 3천여 종의 수목으로 그 풍치가 한국의 파라디사이이라 불릴 만큼 아름답다. 이 섬은 해안선이 23km이며 전망대, 조각공원 등이 갖춰져 있으며,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공룡굴, 공룡바위, 공룡발자국과 섬주위로는 전천후 낚시터가 있다.



## 유람선 운항시간

첫배 : 오전 7시 ~ 8시(하절기), 오전 8시 ~ 9시(동절기)

마지막 배 : 오후 4시 ~ 4시 30분(하절기), 오후 2시 30분 ~ 3시(동절기)

## 신선대

도장포 마을 우측에 폐교된 초등학교 분교 옆 오솔길로 내려가면 신선대가 나온다. 신선대는 바닷가에 큰 바위가 자리를 틀어잡고 있는 형상인데, 그 주변의 해안경관과 더불어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이 바위는 갯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갯바위라고도 부르며, 벼슬길이 막혀 있는 서민들이 이 바위에 득관의 제를 올리면 소원성취 한다는 말이 전해진다. 주위에는 오색바위와 멀리 다도해 풍경이 바라다 보인다.

## 바람의 언덕

남부면 갈곶리 도장포마을, 그 마을의 북쪽에 자리 잡은 언덕이 바람의 언덕이다. 이곳은 거제도에서 특이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탁 트인 바다전망이 좋은 곳으로, 원래 지명은 '띠발늘'로 불렸으나, 2002년 경부터 '바람의 언덕'으로 명명되었다.

## 거제도 맛집 Best 3



밥도둑으로 불리는 게장을 전문으로 내는 '싱싱게장(055-681-5513)'은 거제도 장승포에서 가장 오래된 원조 맛집으로,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대표메뉴로 내세우고 있는 식당이다.



장승포항의 '항만식당(055-682-4369)'은 해물탕이 유명한데, 거대한 뚝배기에 담겨져 나오는 음식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명사해변 부근에 자리한 '부전회식당(055-632-1722)'의 멧계비빔밥은 진한 바다 냄새가 그윽하게 나는 최고의 맛이다.

자료제공 \_ 거제문화관광과(055-639-3000)



# 재즈, 웅산을 움직이는 원동력

##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재즈 디바’, ‘재즈 스타일리스트’라 불리며 국내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 중 가장 솔(SOUL)적인 창법을 구사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때로는 시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기교와 해석, 그리고 독특한 음색 등 재즈가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에 가장 부합하는 특기를 가진 그녀는, 중저음의 허스키하고 시종 일관 흔들림이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수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웅산은 말한다. 그녀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바로 음악이라고.



## ● 운명에 빠지다

“참으로 저는 일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재즈를 시작한 후부터 단 한 번도 3일 이상 쉬어 본적이 없거든요. 여행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되었죠. 사실 힘들기도 하지만, 공연을 하며 직접 팬들을 만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1년에 100회 이상 공연하며 18년 째 다져진 숙련된 테크닉과 공연 등을 통해 재즈 마니아들 뿐 아니라 대중들을 사로잡아온 웅산. 뛰어난 곡 해석력으로 섬세한 발라드부터 강한 비트의 노래까지 모든 장르를 자신이 가진 특유의 감성으로 그녀는 노래 안에 불어넣어 따듯한 음색과 혼이 담겨있는 신비한 목소리로 노래한다. 또한 올 가을부터 충북보건과학대 실용음악공연과 겸임 교수로 전공실기분야 보컬강의를 맡아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다.

사람들이 웅산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그 말, “독특한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건가요?”

그녀의 팬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일 터. 웅산은 한 때 비구니였다. 그 때 ‘큰 산은 많은 사람을 쉬게 한다’는 뜻으로, 스님이 지어준 별명이다. 그녀는 열여덟 살이 되던 해 비구니가 되고자 충북 단양에 있는 구인사를 찾았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일념으로 절에 들어가 머리를 깎은 후, 불교공부를 위해 산사에서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부좌를 틀고 앉아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스님의 죽비를 맞은 웅산의 입에서 염불이 아닌 한영애의 ‘누구 없소’가 불쑥 튀어나왔다고 했다.

“그 순간, 더는 수행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산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절에 있는 동안 복식호흡과 불경을 읽으며 발성한 것



이 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비구니가 되고자 절에 갔지만, 결국 노래란 운명에 빠지게 된 거죠.”

## ● 물 만난 고기, 길을 찾다

산에서 내려온 그녀가 노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한 유일한 통로가 대학가 요제였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순진하고 순수한 생각이지만, 음악을 할 수 있으리란 기대와 희망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했죠.”

결국 그녀는 자신의 바람대로 대학에 입학했고, 가장 먼저 록 음악 동아리를 찾았다. ‘돌핀스’라는 록 밴드에서 오디션을 본 웅산은 밴드창단 이래 최초의 여자 리드보컬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한 곡, 한 곡을 수십 번씩 불러가며 밤 새워 노래연습을 했다. 노래를 부른다는 자체만으로 즐거웠고, 행복했다고.

대학가요제에도 출전한 웅산은 지역예선에서 가창상과 인기상을 받았지만, 아쉽게 본선진출에는 실패했다.

그녀는 대학시절 록에만 빠져 그 외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세상에 많은 장르의 음악이 있는데 왜 록에만 빠져있냐”며 테이프 하나를 선물했지만, 책상에만 넣어뒀다. 시간이 흘러 책상정리를 하던 웅산은 우연히 노래를 듣게 되었다.

“그 순간, 갑자기 세상이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한 여인의 너무나 애절한 노랫소

웅산은 차비 밖에 되지 않는  
하루 일당 2만원을 받으며 매일 그렇게  
성남 집과 홍대를 오가며 노래를 했다.  
그때는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내고 노래를 하라고 했어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당시 매일 고민하고, 듣고, 부르며  
만들었던 수많은 악보들이  
지금은 커다란 재산이라 말했다.  
그때 만들어진 악보의 양이 상당해서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웅산 리얼북’이라 불렀다고.  
아마 웅산이 누구보다도 많은  
레퍼토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리에 가슴이 저리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죠. 바로 빌리 할리데이(Billie  
Holiday)의 ‘I’m A Fool To Want You(당신  
을 원하는 나는 바보겠죠)’였습니다. 빌리  
의 음악을 듣고 너무 큰 감명을 받았습니  
다. 슬픔이 가득한 그녀의 목소리에 심장  
이 멈출 것만 같았죠. 그래서 나도 꼭 저런  
노래를 불러야겠다고 마음먹고 재즈를 하  
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노래 한곡이 웅산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이때부터 그녀는 재즈 가수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바로 남대문 시장에 달려가 검정색 벨벳  
드레스를 한 벌을 구입했다.

“왜냐구요? 재즈를 하려면 벨벳 옷을 꼭  
입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하!”



## ● 멈추지 않는 열정

그렇게 재즈는 웅산 인생의 새로운 화두가 되었고,  
재즈클럽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 다니기 시작했  
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성남에 있는 ‘음악마당’이란  
클럽에서 우연히 재즈 1세대인 피아니스트 신관용  
씨를 만났고, 웅산을 눈여겨 본 신 씨는 웅산에게  
자신의 밴드에 들어오라 제안했다.

“재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제게 노래 한 번 해  
보라 말씀하셨고, 느닷없고 어설픈 오디션을 통해  
재즈 보컬리스트로서의 웅산이 탄생했습니다.”

비구니 시절 다져진 끈기와 노력, 록밴드 시절 좌  
증을 휘어잡는 힘 있는 목소리는 재즈와 잘 맞물렸  
다. 웅산의 매력적인 보이스에 팬들은 환호했고,  
일본에서의 공연 요청이 쇄도했다.

언제나 그녀는 새로운 무언가를 접할 때마다 음악  
에 대한 한없는 갈증을 느낀다.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는 자신은 너무나 작은 존재임을 느낀다.

재즈보컬리스트뿐만 아니라 싱어송라이터, 뮤지컬  
배우 그리고 음악방송 MC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  
하고 있는 웅산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한다.

그녀는 무대 위를 향해 첫발을 내딛는 순간, 아직  
까지도 울컥하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 항상 입가에  
미소를 가득 머금는다.

“제가 처음 재즈를 접하며 느꼈던 기분을 좀 더 많  
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음악이 솔직해야 하겠죠. 그래서 제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앞  
으로도 노래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계속 될 것입  
니다. 지금처럼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  
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 가을을 만끽하는 음악축제 BEST 3

아침저녁으로 불에 닿는  
선선한 바람이 가을 냄새를 물씬 풍긴다.  
그래서일까.  
잠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올 가을,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축제 속에서  
가을의 멋을 만끽해 보는 건 어떨까.



### 제 11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자유로움과 신선함, 쾌적함, 매력을 선사할 가평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가을을 알리는 대한민국의 대표 야외 음악 페스티벌이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 음악 축제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뽑힌 자라섬 재즈는 4년 연속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녹색생활 홍보대사로도 선정되었다.

기간 : 2014년 10월 3일 ~ 2014년 10월 5일  
위치 : 경기 가평군 가평읍  
장소 : 자라섬, 가평역, 가평시내  
문의 : 031-581-2813~4  
홈페이지 : <http://www.jarasumjazz.com>



### 잔다리페스타(Zandari Festa) 2014

‘잔다리’는 서울 서교동의 옛 지명으로 ‘작은 다리를 뜻하는데, ‘잔다리 페스타’는 아티스트와 관객은 물론 기획자, 제작자, 그리고 해외로까지 다리를 놓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에 걸맞게 뮤지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쇼케이스 음악 페스티벌이며, 대한민국 인디와 독립문화의 중심인 홍대 거리 곳곳에서 사흘간 200여 개 팀과 함께 논스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기간 : 2014년 10월 10일 ~ 2014년 10월 12일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21길 19-3  
장소 : 홍대거리 전역  
문의 : 02-790-3833  
홈페이지 : <http://www.zfesta.com/ko>



### 2014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은 도시적인 세련됨과 청량함의 여유, 가을에 만나는 음악 피크닉, 환경과 사람 사이의 조화,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매년 감성적이면서도 음악적 성과를 인정받는 국내 뮤지션들을 무대에 세워 큰 인기를 끌어왔고, 특히 여성 음악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아온 음악 축제이다.

기간 : 2014년 10월 18일 ~ 2014년 10월 19일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장소 : 서울 올림픽공원 일원  
문의 : 1544-1555  
홈페이지 : <http://www.grandmintfestival.com>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오페라,  
그 매혹의  
세계로!

화려한 기교를 뽐내며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오페라는 놀라움과 감동, 그 자체다.

〈적과 흑〉을 쓴 프랑스의 소설가 스탕달은 “오페라는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 낸 최고의 오락”이라며 찬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페라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고 지겹기만 할 뿐. ‘아는 만큼 얻는다는 말’처럼 오페라 공연을 보기 전에도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부터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오페라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자.



## ‘오페라’의 역사

최초의 오페라는 1597년 야코포 페리의 오페라 ‘다프네(Dafne)’로, 작품은 소실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남아 있는 것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600년 페리의 ‘에우리디체(Euridice)’. 당시는 우리가 흔히 ‘르네상스’라 부르는 문예부흥기였고, 사람들의 이상은 고대 그리스·로마 문화를 부흥시키고 재현해 이를 뛰어넘고자 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 비극을 바탕으로 한 가장 멋지고 세련된 극을 실제 무대에서 재창조해 보려 했고, 당시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좌지우지하는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던 ‘카메라타(Camerata)’라는 예술동아리 회원들을 중심으로 오페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피렌체에서 탄생한 오페라는 그 후 북부의 만토바라는 곳으로 가서 크게 성장하게 된다. 1600년 경 오페라를 무척 좋아했던 만토바의 영주, 곤차가의 후원을 받은 몬테베르디라는 사람이 오페라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이후 곤차가가 죽자 몬테베르디는 만토바를 떠나 베네치아로 옮기게 되고, 오페라 역시 베네치아의 넓은 시장으로 나오게 된다. 당시 베네치아는 해양 무역을 하는 도시 국가로 부유한 신흥 상인들로 넘치던 곳이었다. 귀족들과는 다른 자신들의 문화를 원하던 당시 신





흥 상인계급의 욕구와도 맞아 떨어져 오페라는 대 성황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1637년 세계 최초로 상업적인 오페라하우스가 베네치아에서 문을 열게 되었다.

## ‘오페라’의 특징

연극을 음악으로 하는 것이 오페라이다. 이 음악은 크게 판소리의 창에 해당하는 오페라의 꽃이라 불리는 ‘아리아(aria)’와 판소리의 아니리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대사의 역할을 하는 ‘레치타티보(recitativo)’로 이뤄진다. 레치타티보는 대사의 역할을 하지만 엄연히 곡조가 있는 노래다. 그러니까 오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이루어진 음악극이라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이 음악의 반주를 위한 악단이 바로 ‘오케스트라’다. 즉, 오케스트라는 사실 오페라의 반주를 위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오페라의 아름다운 노래들을 가수들이 부르게 되는데 가수들은 목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여자는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로 나뉘고 남자

는 ‘카스트라토’, ‘테너’, ‘바리톤’, ‘베이스’로 나뉜다. 그런데 오페라는 내용이 대부분 신파적이고 통속적이라 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에게 버림받고,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잃는 이야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프리마 돈나(prima donna)라고 하는 여주인공의 비극적 사랑이야기에 감정이입하여 울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그런데 여자 주인공은 대개 소프라노의 차지이며, 남자 주인공은 테너가 맡는다. 오페라에서는 대개 목소리에 따라 배역이 정해지는 것. 즉 남성 성부에서 주인공 소프라노를 사랑하는 사람은 ‘테너’가 하고, 테너의 연적이거나 소프라노의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 그리고 테너나 소프라노의 아버지를 ‘바리톤’이 맡고 있다. 또한 바리톤 다음의 역할로서 아버지나 노인, 왕, 수도사, 승려 등은 ‘베이스’가 한다. 반면 여성 성부에서 주인공은 주로 소프라노가, 테너를 가운데 두고 소프라노와 연적 입장에 서는 여성은 주로 메조소프라노의 단골 역할, 메조소프라노 다음의 배역, 즉 남자로 치면 베이스에 해당하는 제3의 역할을 알토가 맡는다.

## 다양하게 즐기는 오페라

을 가을엔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이 열려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그중에서도 '오페라 도시' 대구에서 열린 '제 1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다녀왔다. 주제는 'LOVE WE LOST'로, 각박한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잊고 살아가던 치열하고 순수한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준비했다. 과연 올해는 어떤 작품들이 우리를 찾아왔을까.



###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중에서도 아름다운 대사와 극적인 구성으로 사랑받아온 원작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은 수많은 예술작품들을 탄생시켜왔고, 그 중 구노의 작품은 원작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살려낸 음악으로 호평 받고 있다. 국립오페라단이 선보이는 이번 작품은 2013년 <돈 카를로>를 통해 극찬 받은 거장 엘리아저 모신스키가 연출하고 대구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가 지휘봉을 잡는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모은다. 프랑스 오페라의 관능적 선율과 이탈리아 오페라의 경쾌함, 독일 오페라의 장엄미까지 두루 갖춘 <로미오와 줄리엣>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 진실한 사랑과 위대한 희생, 라 트라비아타

'축배의 노래'를 비롯한 익숙한 곡들과 신선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오페라의 황제 베르디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오페라는 향락과 유희에 젖어 살던 사교계의 꽃 비올레타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진정한 사랑과 연인을 위한 자기희생을 담고 있는 비극이다. 유럽 현지에서 활약하는 가수들은 물론 베르디극장 공연 당시의 무대와 의상을 그대로 공수해 이탈리아 오페라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 오페라 재미있게 즐기기

참고자료  
대구오페라하우스,  
<박종호에게 오페라를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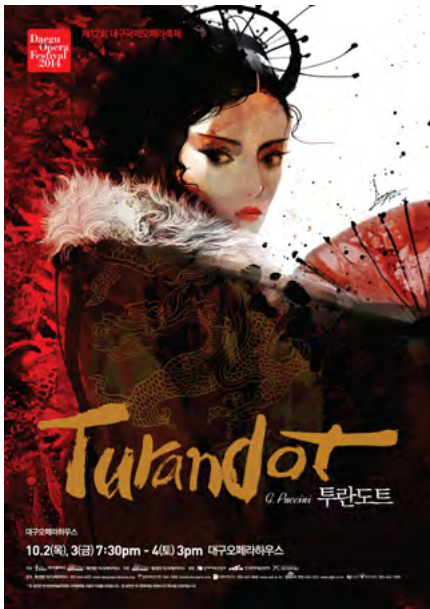
#### 공연 시작 30분 전 도착, 10분 전 입장

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오페라의 줄거리나 작곡가와 작품의 시대, 감상 포인트 등을 미리 알면 보다 효과적으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런데 공연이 시작된 후에는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입장이 불가한 것이 원칙. 그래서 공연 시작 30분전에서 늦어도 10분 사이에 입장하는 것이 예의다. 만약 늦게 도착했다면 경우에 따라 곡 사이에 안내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입장 가능.



#### 박수 타이밍을 지키자

아리아, 중창, 합창 등 한 장면이 끝나고 나면 그 장면의 출연자들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 정석. 만약 박수로도 감동을 표현하기 모자라다고 생각되면 열렬한 환호를 보내도 좋다. 박수와 함께 '베네' 또는 '브라보'라고 외칠 수 있다. 남성 1인에게는 '브라보', 여성 1인에게는 '브라비', 남성 다수에게는 '브라비', 여성 다수에게는 '브라베', 남성과 여성이 섞인 경우에는 남성 다수처럼 '브라비'로 외친다.



## 차가운 공주의 사랑을 얻기 위한 뜨거운 도전, 투란도트

〈투란도트〉는 아름다운 선율과 생동감 넘치는 음악적 표현으로 유명한 푸치니가 '지금까지의 내 작품들은 잇어도 좋다고 자신했을 만큼 열정적으로 매달렸던 작품, 고대 중국의 냉혹한 공주 투란도트와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한 칼라프 왕자의 도전을 그려낸 이 오페라는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아리아 중 하나인 '아무도 잠들지 말라 Nessun Dorma'로도 잘 알려져 있다. 베를린 도이체 오페에서 다니엘 바렌보임의 수석 부지휘자로 활동 중인 클라우스 잘만이 지휘를, 2013년 오페라축제 개막작 〈운명의 함〉으로 호평 받았던 정선영이 연출을 맡았으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한국 성악가들이 대거 참여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 시련과 모험을 무릅쓰는 진정한 용기, 마술피리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 최후의 오페라이자, 노래 중간에 대사가 삽입된 독일 민속극 징슈필의 대표작 〈마술피리〉는 간결하고 동화적인 줄거리와 음악 속에 심층적인 상징들을 다수 숨겨놓고 있어, 연출 방법과 감상자에 따라 그 해석이 무궁무진한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어린이를 위한 가족오페라로 소개되는 〈마술피리〉를 전막 원어로, 독일 현지에서 공연했던 연출과 무대 그대로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 더욱 탄탄해진 구성과 넘치는 유머, 원저의 명랑한 아낙네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것으로 유명한 오토 니콜라이의 대표작인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해학파 니콜라이의 낭만적 음악, 그리고 독일 오페라의 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유럽에서는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마을의 유부녀들에게 똑같은 연애편지를 보낸 팔스타프 백작이 겪는 한바탕 소동을 다루는 유쾌한 희극으로, 1998년 이 작품을 한국에서 초연한 것을 비롯해 2010년 축제 당시 관객들에게 즐거운 웃음을 선사하며 오페라대상 특별상을, 제 3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에서 금상을 차지한 영남오페라단이 더욱 탄탄한 연출과 구성으로 작품을 보완했다.



### '인터미션(intermission)' 때 놀라지 말자

연극이나 영화, 공연 중간에 갖는 휴식시간이 바로 인터미션이다. 보통 러닝타임이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넘는 공연은 1부가 끝나고 15~20분 정도의 인터미션을 갖는다. 혹, 갑자기 공연 도중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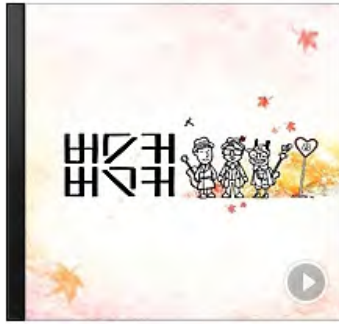
### 명당자리를 찾자

가격이 높은 자리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각자의 취향에 따라 선호하는 자리가 다를 수 있다. 배우들의 얼굴 표정, 느낌 등을 보고 싶다면 무대 바로 앞쪽 자리를, 극 전체를 조망하고 싶다면 1층 중간이나 뒤쪽이 좋다. 그런데 최상등급인 R석이라도 다음 등급인 S석과 별 차이 없는 경우도 많다. R-S-A-B의 좌석 등급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공연장과 공연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통 1층 중간부분과 2층 앞쪽이 R석, 1층 앞뒤와 2층 중간이 S석, 2층 뒤와 3층 앞은 A석, 3층 뒤는 B석으로 나뉜다. 혹, R석 중 맨 앞뒤쪽이나 양옆이라면 가격을 비교해 S석을 선택해도 차이가 없다. 혹, 자리가 무대에서 떨어져 잘 안 보인다면 공연장에서 대여해주는 오페라글라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

# 솔솔 부는 가을 바람타고 떠나는 음악여행

길가에 드문드문 핀 코스모스와 공원 한쪽에는 바람개비들이 바람을 맞으며 돌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듣기 좋은 노래를 소개해드릴게요. 지금부터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가을 노래를 들어보세요.





## 처음엔 사랑이란게

버스커버스커

버스커버스커 하면 <벚꽃엔딩>이 봄노래로 유명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가을의 쓸쓸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곡들도 많습니다. 그 중 가을에 듣기 좋은 노래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곡은, <처음엔 사랑이란게>. 흑백 톤 뮤직비디오와 어우러지는 장범준의 보컬과 어쿠스틱 기타가 쓸쓸한 정취를 극대화 시켜주는 것 같아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곡입니다.



## 가을에 만나

윤건

윤건이 직접 작곡한 곡인 <가을에 만나>는 지난여름 해운대에서 처음 본 이성을 가을에 다시 만나 사랑을 고백한다는 달콤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곡은 기타리스트 함춘호의 기타 연주와 윤건의 피아노 연주가 더해져 '감성 저격 신곡'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 Rain

김예림

음색이 좋은 사람들을 볼 때면 부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색은 타고난 부분이 많기에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사람을 이끌어 내는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김예림의 <Rain>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목 때문에 장마철에 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촉촉한 가을비를 바라보며 듣는 것도 좋거든요.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이 느껴지는 목소리는 가을에 안성맞춤이죠.



## Isn't She Lovely

스티비 원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서 산소 과다 공급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은 스티비 원더.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모니카를 잡았고, 11살 때 음반제작사에서 오디션에 합격해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죠. 눈으로 보고 싶은 딸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아 부른 곡이 'Isn't She Lovely'라고 하는데요. 사랑스런 하모니카 연주 사이로 아이의 울음소리, 웅얼이 소리, 목욕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 영원한 가객 김광석을 따라 추억의 거리로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니. 어디를 가도 고(故) 김광석의 얼굴 그림이 있고, 그의 노래만이 흘러나온다. 철이 들면서 아련하게 읊조리게 되는 김광석의 노래를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된다.

바로 대구시 중구 대봉동에서 태어난 김광석의 삶과 음악을 테마로 조성된 벽화거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이곳은 한국관광공사가 네티즌 투표와 여행전문자문위원 점수를 합산해 뽑은 '2014 대한민국 베스트 그 곳' 9개 지역 중 한 곳으로 평일에는 수백 명, 주말에는 1만 명 가까운 인파가 전국에서 몰려든다.

이 거리에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있다면, 바로 담벼락에 빼곡히 적혀있는 김광석의 글이다. 서른세 살에 이승과 이별한 그가 유작으로 남긴 '인생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아련한 마음과 알 수 없는 듯한 슬픔이 다가온다. 사람들은 노래와 그림을 통해 이 세상에 없는 김광석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

지금부터 골목길 초입에 있는 기타 치는 김광석 동상을 시작으로, '김광석 길'로 들어가 보자.



꿈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시험 뜬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 딸아이 결혼식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김광석,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 그 시절의 추억

김광석의 음악에 나 자신을 투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만큼 그의 노래는 우리 가까이에 있다. 때로는 너무 아픈 사랑에 쓸 한 잔 기울이며 김광석의 마음을 들었고, 때로는 서른이 되어서야 그의 음악을 진정 느꼈다. 때로는 노부부의 모습에서, 때로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그의 노래를 읊조렸다. 이것이 바로 김광석의 노래가 영원한 이유다.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20~30대이지만, 40~5대 중·장년층도 간간이 섞여 있다. 몇 년 사이 이곳이 많이 알려지면서 외지에서도 많이 찾고 있다고.

골목을 구경하는 한 커플과 대화를 나눴다. 스물 두 살인 경북대학교 모바일공학과 2학년 학생 곽명준 씨는 "텔레비전에서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 그때부터 김광석 팬이 되었다"며 "기타를 배우면서 김광석의 노래를 즐겨 연주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통기타와 하모니카로 그 시절 음악을 평정한 고(故) 김광석(1964~1996)이 태어난 지 50년이 되는 해다. 1964년 1월 22일 대구시 남구 대봉동에서 태어난 그는 유년기의 대부분을 수성구 범어동에서 보냈고, 다섯 살 때 부모를 따라 서울로 이사했다.

이곳을 설명하려면 신천과 방천시장을 빼놓을 수 없다. 신천은 대구시를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하천이고, 둑길은 현재 신천대로다. 이 방천시장과 둑길 사이의 폭 3m 남짓한 골목길 400m 가량이 바로 '김광석 길'이다.

이곳이 탄생한 것은 2009년으로, '방천시장 문전성시(文傳成市) 프로젝트'가 김광석을 다시 태어나게 했다. 대구의 문화예술인들은 대구의 역사와 함께해 온 전통시장 방천시장이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켓 때문에 존립 위기에 놓이게 되자 다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했다.





### 떠나간 이를 떠올리며 '아련'

'문화로 전통시장을 되살리겠다'는 뜻에서 경북대 건축과 이정호 교수가 중심이 돼 '방천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라는 문화예술운동을 펼친 것이다.

다른 곳처럼 이곳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심 한쪽에 있던 방천시장은 여느 시장이 그랬듯, 하루가 다르게 쇠락해갔다. 1천 여 개의 점포가 성황을 이루던 그 모습은 간곳없고, 겨우 60여개의 점포들이 시장의 명맥을 잇고 있었다. 그래서 쇠퇴하고 있는 이곳 시장을 살려 보자는 시도가 바로, 문전성시 프로젝트였던 것.

그리고 김광석 길 초입과 중간쯤에 조각가 손영복 씨가 김광석 동상을 한 개씩 설치했다. 골목길 담벼락에는 만화가 천명기 씨가 대형 만화 그림으로 방천시장의 역사를 표현해, 잠시 보기만 해도 방천시장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그 옆에는 이정호 교수가 주도한 '방천시장 문전성시'가 어떤 취지로 시작되었는지를 알리는 안내문도 있다.

이렇듯 골목 곳곳은 화가의 그림과 조각가의 동상, 시인의 시 등 모든 예술작품들이 있다. 여기에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낙서가 더해져 김광석 전시장이 완성된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있다면, 바로 담벼락에 빼곡히 적혀있는 김광석의 노랫말이다. 사람들은 김광석의 노래와 그림을 통해 이 세상에 없는 그와 대화를 나눈다.

서른세 살에 이승과 이별한 김광석이 유작으로 남긴 '인생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아련한 마음과 알 수 없는 듯한 슬픔이 가슴에 다가온다.

"7년 뒤, 7년 뒤에 마흔 살이 되면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마흔 살이 되면 오토바이를 하나 사고 싶어요. 할리 데이비슨. 멋진 걸루. 돈도 모아놓았어요. 이런 얘길 했더니 주변에서 상당히 걱정하시데요. '다리가 달겠니?' 그거 타고 세계일주 하고 싶어요. 괜찮겠지요? 타고 가다가 괜찮은 유럽 아가씨 있으면 뒤에 태우고~. 머리 뺨뺨 깎고, 금물 이렇게 들어가지고, 가족바지 입고, 체인 막 감고... 나이 40에 그러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갑 때, 저는 환갑 때 연애하고 싶어요. 로맨스..."

올 가을, 음유시인이며 가수인 김광석을 그리는 아름다운 추억의 길에서 음악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 당신은 화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이 생겨날 때,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강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분노를 표출할 때, 우리 몸은 '전쟁상태'로 변화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숲 속에서 맹수를 만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신속히 도망가거나 맹수와 격투기를 펼치는 수밖에 없죠. 이때 우리 뇌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 '도망과 싸움'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몸을 변화시킵니다. 즉, 교감신경을 자극시키게 되죠. 교감신경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하여 온몸에 혈액을 빠르게 보내고,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뇌와 심장에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내기 위해 소화와 배설, 생식에 관련된 장기에 에너지를 공급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호흡은 얇고 빨라지죠.

이제 맹수를 만날 일이 없는 현대인에게도 강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를 낼 때, 이것과 동일한 신체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지속적으로 교감신경계가 자극되어 위기상황이 아닐 때도 안정적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스트레스성 질환 즉 심장, 위장, 혈압 관련 질환, 공황장애, 불면증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과연 화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글\_ 한국서비스코칭센터 박소영 대표



**화내는 사람을 위한 세 가지 질문**

이제 화를 폭발시키기 전,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모든 질문에 'YES'라고 할 수 있을 때에만 화를 낼 가치가 있다.

**1. 내 건강과 바꿀 만큼 중요한 일인가?**  
 나의 심장, 위장 건강을 해쳐도 좋을 만한 중요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

**2. 지금 화를 내면 상황이 더 좋아지는가?**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상황을 더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3. 내 앞의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가?**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화를 낸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풀고 있지는 않은지?



**화난 감정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숨 쉬는 방법을 바꿔라.**

공포, 분노, 슬픔을 느낄 때 호흡은 얇고 빨라진다. 반면 행복과 여유를 느낄 때는 어떤가? 깊은 호흡이 천천히 일어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호흡이 깊어지면 마음도 천천히 여유를 되찾는다.

**두 번째, '꼬리표'를 떼라.**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화를 내는 대상에게 내가 붙이고 있는 '꼬리표'는 무엇인가?

무능한 인간 / 이기주의자 / 게으름뱅이 / 싸움닭 / 개념 없는 사람 / 구제불능 / 진상 고객

상대에게 부정적 꼬리표를 붙여 생각하면, 상대의 모든 행동이 나쁘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 나는 '맞는' 행동을 하고 상대가 '틀린' 행동을 하고 있으니, '틀린' 저 사람이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분노는 정당화되고 더 강해진다.

상대에게 붙인 꼬리표를 찬찬히 들여다보자. 저 사람은 정말 게으름뱅이일까? 이것이 정말 '진실'인가?

**세 번째, 마음의 근육을 키워라**

외부로 향했던 생각의 방향을 나 자신에게 돌려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무엇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밖으로 보이는 모습을 위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만 살아다가 보면 마음의 근육이 약해져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무너진다. 식스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나의 감정을 조금 더 돌아봐 주는 것, 명상과 여행 등을 통해 생각이 쉴 틈을 주는 것, 스스로에게 즐거운 기억을 선물하는 것,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나만의 방법을 생각해보자.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는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다.

# MIRnews

당신의 미르!  
알고 계신 것 보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4. AUTUMN      미르는 의료 및 사회봉사, 미르갤러리, 미르 아카데미를 통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 2014 제7회 미르치과기 전국여자검도대회



8월 27일 부산 굿월치과(덕천점) JCI인증 벤치마킹 상무미르(2), 진주미르(3), 순천미르(4), 포항미르(2), 네트워크(4)



상무 7월 8일~9일 2일간 의료기관인증평가 수행 후 9월 4일 4년 유효기간의 인증획득



대구 8월 18일 중국치과의사수료식



포항 9월 18일 교육청 진로체험 포항시 소재 30개 중학교, 31명 중학생 대상



전주 9월 14일 박채희 원장 닥터MBC 방송 주제 : 부정교합이 심미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포항 9월 20일 신관 개원행사



대구 8월 19일 이란 · 이집트 방한세미나



대구 9월 3일 수면마취교육



상무 7월 29일 전반기 병원 통계발표



상무 8월 8일 우즈베키스탄관광청 병원방문



순천 최철용 원장 순천향림중학교 "전문직업인 초청강의" 진행

# MIR news



**목포** 9월 20일 감염관리 및 핸드피스 교육,  
강연자: Dio김영복 대표



**상무** 8월 14일 승진대상자 독후감 발표회



**포항** 9월 4일 제 3차 헌혈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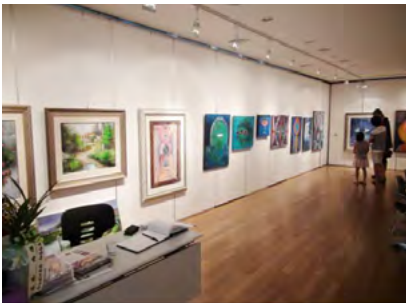
**목포** 하반기 소아치과견학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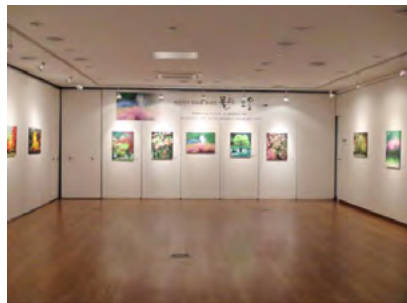
**상무** 7월 16일 보험강의



**대구** 9월 12일 갤러리 명품판화 현장특강



**진주** 미술전시회 '서양화가 김미효 개인전 4회'



**진주** 양승용 사진작가 초대전 '물의 포옹'



**포항** 회화의 시대정신展

**전주** 정희웅 원장 치위생사 학회 강의  
날짜: 10월 11일, 대전보건대학교  
주제: 씹는힘이 치아에 미치는 영향

**전주** 오상훈 원장 전라북도 치과의사회 2014  
종합학술대회 강의  
날짜: 9월 21일, 원광대학교  
주제: Primary approach for implant occlusion

**진주** 김옥준 원장 서울 TWEED교정학회 참석

**진주** 작업환경측정(E.O GAS), 실내 공기 질 측정

**진주** 진주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임상실습

**창원** 8월 3일 1박 2일 전직원 남해 워크샵

**전주** MBC 라디오 치과상담  
9월 5일: 오상훈 원장 (매복치와 입안이 헐었을 때)  
9월 12일: 허선 원장 (스케일링 및 유치와 영구치)  
9월 19일: 김종환 원장 (치아미백 및 치아건강과 음식)  
9월 26일: 정희웅 원장 (치아 발육장애와 맹출장애 및 구강건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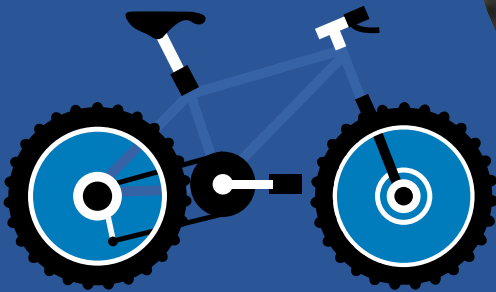
**진주** 실습생 강의  
- 8월 1일: 노창세 원장  
- 8월 5일: 김옥준 원장  
- 8월 12일: 황준환 대표원장

**상무** 9월 11일 2014년 독감예방접종(대상: 전 직원)

**상무** 9월 26일 제8회 미르치과병원기 광주  
게이트볼 대회 시행예정

**포항** 금요세미나  
- 7월 4일, 구연이 팀장, 주제: 보험 임플란트  
- 7월, 이창환 원장, 주제: 근관 치료 후 치아의 변화  
- 9월 5일, 이경채 원장, 주제: 치아 외상

## 아름다운 우리강산, 산악자전거로 둘러보세요



### MTB아마추어 최고봉 정복한 수원미르치과 최재욱 원장



꾸준한 연습의 힘이 매일, 매시간 피부로 체감하는 이가 있다. 그는 하루하루 망가지는 자연환경을 생각하며 쉬운 길을 버리고 힘든 길을 자처한다.

바로 매일 산악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만으로 국내 MTB 최정상인 280 랠리서 당당히 1위 자리를 차지한 수원미르치과 최재욱 원장의 얘기다. 280랠리는 280KM를 36시간 안에 주파하는 경기로 아마추어 최고수는 물론 프로들도 힘들어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대회인데, 최재욱 원장은 참가한지 2회 만에 압도적인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27시간이 평균 수준임을 감안할 때, 어지간한 애호가도 완주 목표일 정도의 수준 높은 대회였다. 이번 대회 그의 기록은 26시간 15분, 모두가 놀랐다. 2위 기록과의 격차도 무려 3시간에 달했다.

민망한 듯 한참을 멋지게 웃던 최재욱 원장은 "대회를 치르며 하루하루 쌓아올린 연습의 힘을 실감했다"며 "특별한 훈련 없이 매일 출퇴근길을 산악자전거로 다녔을 뿐인데, 어느새 이만큼 실력이 향상되어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 씩스러워했다.

그가 처음 산악자전거를 접한 건 2010년, 제대로 산악자전거에 입문한지는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다. 하지만 최재욱 원장은 주말에 주로 산을 찾는 다른 애호가와는 조금 달리 대회 참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산악자전거를 거의 타지 않았다. 왜냐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 대신 산악자전거를 시작한 이후 매일 출퇴근 시간에 집에서 치과까지 22km의 거리를 매일 빠지지 않고 산악자전거로 왕복한다.

그는 "산악자전거는 치과진료와도 비슷하다"며 "매일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면 그것들이 쌓여서 임상실력이 늘고, 또 그만큼 치과도 잘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산악자전거에서 배웠다"고 빙그레 웃었다.

36시간 만에 280km를 주파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운동화 끈을 조여 매는 것이 힘들다는 최재욱 원장. 하루하루 운동화 끈을 매는 마음으로 환자를 맞이하는 최재욱 원장이 있기에, 그의 환자들도 환하게 웃을 수 있으리라.

## 미르진 여름호 이벤트 당첨

### 친절한 미르인을 뽑아주세요

## 미소로 마중하는 미르

대구미르치과병원, 김민수 고객님

안녕하세요! 아이의 교정치료를 위해 며칠전 미르치과 본점을 방문했습니다.

여자아이의 꿈이 아나운서여서 아이는 미소를 잘지으려면 교정이 필수라며 아이가 서두르네요.

그날 대구의 날씨는 35도까지 오른 아주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치과 치료를 위해 먼저 주차실에 도착한 저희는 아무더운 날씨에도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친절하게 미소지으시는 주차관리요원분들의 모습에 더운것도 잊게 되더군요

1층로비에서 들었던 저희는 접수직원분의 친절함에 또한번 놀랍니다.

투정섞인 저희 아이의 표정에도 아주 친절히 미소지으며 잘안내를 해주더군요

쇼파에 앉아서 잠시 대기하는 동안 아이에게 얘기해줬습니다.

예쁜미소 먼저 가지는게 가지런한 이를 가지는 것보다 먼저인것 같다고 아이는 교정도 그리고 미소도 미르치과에서 다얻고 갑니다.

### 지친 일상에 힘이 되어주는 음악!

## 아이유 너의 의미 (Feat. 김창완)

진주미르치과병원, 문초희 사원

아이유와 김창완아저씨의 목소리가 묘하게 어울리는 이 노래를 요즘 즐겨듣고 있습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게 커다란 의미~ 라고 시작하는 가사말은 듣고 있으면 시인 김춘수의 '꽃'이 생각납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누군가에게 '커다란 의미'가 되고 싶은 계절, 가을입니다.

## 미르진 가을호 이벤트 응모



### 사랑, 그대로의 사랑

니만큼 커지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 사랑, 그리고 행복이 아닐까요. 이 것이 작은 씨앗이 되어 싹튼다면,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가치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작은 사랑이 모여 큰 사랑이 되는 거죠.



### 그리운 사람에게 사랑을 더해 주세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가슴 따뜻한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미르진>의 겨울호 주제는 '사랑, 그대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추억, 웃음과 감동이 깃든 가슴 따뜻한 사연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자기 주변을 돌아보고 따뜻함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모 기간: 11월 5일(수)까지

당첨자 발표: 개별 통보 <미르진> 겨울호

응모할 곳: [mirnw@mir dental.co.kr](mailto:mirnw@mir dental.co.kr)

[미르진 이벤트 응모]를 제목에 달아주세요.

※ 주소, 연락처, 실명을 꼭 남겨주세요.



수기 당첨자 0명  
파바초코케익 기프트권



MIR, 행복한 미소를 향한 정직한 약속  
the global standard

# 천고마씨의 계절

[天高馬肥]

가을 하늘이 높으니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가을은 기후가 매우 좋은 계절임을 형용하여  
이르거나 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이르는 말.

아름답게 물든 단풍이 소슬한 가을바람에 우수수 흩날리며  
쓸쓸한 가을의 정취를 더하는 이맘 때에,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MIR 미르치과 네트워크

거제미르치과병원 경산미르치과병원 구미미르치과의원 뉴욕미르치과의원 대구미르치과병원 목포미르치과병원 밀양미르치과의원 부천미르치과의원 상무미르치과병원 서대구미르치과의원 서울미르치과의원  
수원미르치과의원 순천미르치과병원 아주시르치과병원 안산미르치과병원 전주미르치과병원 진주시르치과병원 창원미르치과의원 청단미르치과병원 통영미르치과의원 포항미르치과병원